

## 조수경

10월 20일, 내가 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광양에서 출발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한달동안 배에서 처음으로 단체생활을 한다는 사실에 설레었다. 또한 그동안 학교에서 육상으로만 야외탐사를 나갔는데 해상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지도 궁금하였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가기 매우 힘든 지역에서 배를 타고 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배는 광양항에서 출항하여 적도를 지나 뉴질랜드의 리틀턴을 향해 갔다. 뉴질랜드를 향해 가는 동안 선내 생활은 매우 즐거웠다. 적도를 지날 때 브릿지에서 일출과 함께 고래를 보거나 적도제를 하기도 하고 박사님들과 대화를 통해 내가 모르던 지질학의 여러 분야에 대해 알게 되었다. 특히 박사님들과의 대화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중 하나인데 육상 지질에 갇혀 있던 내 생각의 틀을 깨고 인공위성을 통한 지질 연구 등 지질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알 수 있게 된 좋은 경험이었다. 덕분에 진로에 대해 더욱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가끔씩은 다 같이 모여 카드 게임을 하거나 여러 놀이를 하는 등 이렇게 배에서 생활하다가 뉴질랜드에 정박한 이후론 연구지역으로 이동하여 본격적인 연구작업을 시작하였다.

연구 지역에 가까워지자 난생 처음보는 유빙이 사방에 가득한 날이 많았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 밖을 보면 커다란 빙붕이 저 멀리 보이고 어느 때는 바다에 가득히 떠있는 유빙을 쇄빙 하면서 지나가 덜컹거리고 시끄럽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큐에서나 보던 장면을 직접 보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새하얀 유빙과 커다란 빙붕이 눈 앞 가까이서 보이는 장면은 장관이었다. 또한 여러 마리의 새들이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이 추운 곳까지 날아다닌다는 것이 신기했고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다.

연구 지역에 도착 후 맨 처음 실시한 연구 작업은 드렛지였다. 철로 된 사슬 그물 같은 도구로 해저 밑 바닥을 훑어 돌을 끌어올리는 작업인데 아침 일찍 드렛지 작업을 구경하러 모였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드렛지가 분실된 것이다. 커다란 돌이 많이 올라온다 하셔서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작업인 만큼 아쉬움도 컸지만 드렛지가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다음 드렛지 작업을 기대했다. 그러나 일정 때문에 다음 드렛지는 결국 실시하지 못했다.

그 다음은 총자력계 탐사였다. 학부생들은 자력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일을 했는데 이런 작은 탐사장비를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멀티빔과 연계하여 락코어 할 지역의 좌표를 추측하는 게 신기했다.

다음은 락코어 작업을 하였다. 락코어는 250kg의 무게로 해저면의 때려 떨어져 나온 유리질의 암석 조각을 포획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포획된 암석은 화학 분석에 이용된다. 학부생들이 가장 열심히 일 해야 했던 작업이기도 했다. 헤드를 조립하고 컵에 바셀린을 채운 후 가지고 나가 몸통에 붙인 뒤 락코어가 올라오면 다시 해체하는 등 바쁜 작업이었다. 락코어 작업은 3개의 조각을 돌아가며 연속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힘든 적도 있었고 올라온 암석 파편이 별로 없을 때에는 실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암석 파편이 많을 때는 뿌듯함과 바셀린 속에서 돌을 찾아내는 재미가 있어 즐겁게 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이 일하는 선배님들과 박사님들 덕분에 지루하지 않고

재밋게 할 수 있었다.

이번 아라운 승선을 통해 여러가지를 경험했다. 지금까지 직접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연 경관을 직접 볼 수 있었을 뿐 만 아니라 미래 진로에 관해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좋은 경험이었다. 또한 친절하신 승조원분들과 극지연구소 박사님들, 연구원님들 덕분에 더욱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다.